

“보상도 사과도 없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피해자의 눈물

“가해자는 구속되고서야 찾아와 합의 요구”

“안전 방치한 지자체, 아무 답변 없어 의문”

“우리는 아직도 교통 속에 살고 있는데 어떤 보상과 사과도 없이 모두에게 잊혀가는 현실이 너무 힘듭니다.”

광주 클럽 붕괴 사고 당시 복층 구조물에 깔려 척추뼈 6개가 골절된 피해자 A씨의 어머니 김모씨(54)의 말이다.

불법으로 증·개축한 복층 구조물이 무너져 3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클럽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3개월여가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법의 허점에서 고통받고 있다.

구조물에 깔렸던 김씨의 딸은 사고 당시 무너져내린 불법 증축물 바로 아래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뭉’ 하는 소리와 함께 갑자기 무언가에 짓눌렸고 자신의 바로 앞에 있는 사람이 구조물에 깔려 피투성이가 된 것까지 목격했다.

현장은 이수라장이 됐고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몸을 가눌 수 없었다. 당시는 척추뼈가 6개나 골절됐다는 사실을 몰랐다.

하지만 피가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의 구조는 늦어졌다.

구조된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처음에 척추뼈 3개가 골절됐다고 했지만, 대학병원

서 정밀검사를 받으니 척추뼈 6개가 골절돼 그날부터 1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다.

무엇보다 A씨는 피해자였고 잘못된 것이 없었지만 클럽에서 난 사고라는 이유로 혹시나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볼까 봐 어디에도 하소연을 하지 못했다.

A씨는 현재 퇴원했지만, 여전히 대학병원 신경외과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며 정신과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있다.

딸이 통증 때문에 신음을 낼 때마다 마음이 아프다는 김씨는 그래도 가장 힘든 것은 “모두의 무관심”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고 당시는 시장, 구청장이 세계수업선수권대회 나간 외국인 선수들을 찾아 사과하고 위로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사과, 보상, 위로도 없었다. 단 한 명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고 말했다.

김씨는 “가해자 역시 단 한 차례도 연락이 없다가 구속된 후에야 불구속 된 업주가 찾아와 사과 대신 합의를 요구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사망자와 경상자를 대부분 ‘추후 어떤 이의제기도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하



경찰과 소방 당국을 비롯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들이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 현장에서 현장감식을 하고 있다

성했다고 한다. 하지만 후유장애까지 안고 살아가야 하는 증상 환자들은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 모르는데 그런 조건으로 어떻게 합의로 합의하나”라며 눈물 지었다.

김씨는 “불구속 된 업주가 찾아와 클럽 건물이 불법 증축물이라 보형 적용도 되지 않는다며 합의를 해달라며 터무니없는 액수를 말했다. 척추뼈를 다쳐 입신을 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고 평생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 지경인데 사과 한 마디없이 합의를 해달라는 가해자에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건 개인적인 문제, 단순히 치료비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라며 “지금 같은 상황에선 언제 또 우리 딸 같은 사람들이 나올 지 모른다”

고 말했다.

김씨는 “불법으로 구조물을 증·개축한 업주들과 안전 관리 소홀한 한 안전관리대행업체 관계자까지 재판을 받고 있지만 왜 그 안전을 방치한 지자체는 아무 답변이 없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11월 초 재판 전에 찾아왔던 업주 관계자들과도 연락이 끊겼다.

김씨는 “딸의 정신적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통증을 매일 봐야 하는 것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누가, 어떻게,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는지 하물며 어디에서 그런 것을 물어볼 수 있는지도 그 누구도 말해주지 않는 현실이 더 아프다”라며 눈물 지었다.

남해고속도로 달리던 차에 불...무면허운전 외국인

17일 오전 3시11분쯤 전남 광양시 중군동 남해고속도로 순천방향 광양터널 입구에서 베트남 국적 A씨(26)가 몰던 아반떼 승용차에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소방대가 50여분 만에 불을 껐고, A씨는 차 엔진룸에 불이 붙자 차에서 탈출해 다치지 않았다.

A씨는 사고처리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차를 몬 사실이 들끓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멧돼지 사냥 나선 포수, 동료가 쏜 총에 다리 다쳐

멧돼지 사냥에 나선 포수가 다른 포수가 쏜 총알 파편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17일 전남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전남 오전 10시20분쯤 전남 장성군 남면 한 아산에서 A씨(57)가 산탄환 파편에 맞아 허벅지 부위를 다쳤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날 동료 포수 2명과 멧돼지 포획에 나섰다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동료가 쏜 탄환이 나무, 돌과 같은 딱딱한 물체에 부딪혀 튀기면서 A씨가 다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광양 해상서 화물선 기관사 실종...수색 중

광양항에 정박 중인 화물선에서 30대 선원 1명이 실종돼 해경이 수색을 벌이고 있다.

16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15분쯤 광양시 H부두에 정박 중인 2658톤급 화물선 P호(승선원 11명)에서 이 선박의 1기관사인 A씨(35)가 선내에 보이지 않는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접수한 여수해경은 경비함정 2척, 해경구조대, 연안구조정 1척, 민간구조선 3척과 잠수 요원을 투입해 선박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수색에 나섰다.

또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운영 중인 수직 조류도를 활용한 표류 예측시스템을 가동하는 한편 광양경찰서, 광양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수색 협조를 요청했다.

실종된 A씨는 15일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같은 날 오후 11시 30분쯤 P호에 복귀 후 16일 신고할 때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 관계자는 “P호 선박과 H부두에 설치된 폐쇄(CCVT)회로 등을 확인하고 정확한 실종 경위를 위해 선원들을 상대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단지서 70대 운전 SUV인도 돌진

16일 오후 1시40분쯤 광주 북구 삼각동 한 아파트 단지에서 A씨(73)가 몰던 SUV 차가 인도로 돌진했다.

차는 가로수와 인도 진입 방지 기둥을 들이받고 화단 아래로 굴러 떨어져 왼쪽으로 전도됐다.

A씨는 경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인도를 지나가는 사람은 없어 추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목격자들은 “차가 갑자기 굉음을 내더니 인도로 돌진해 가로수를 들이받고 화단 옆으로 굴러 떨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급발진 혹은 A씨의 운전미숙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광주 소방, ‘유동인구 최대’ 금남로5가역서 재난대비 훈련

북부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 실시

광주 북부소방서가 변화가와 인접해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금남로5가역에서 2019년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북부소방서는 전날 오전 광주 북구 금남로5가역에서 각종 재난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대응 능력을 높이고자 이같은 훈련을 전

개했다.

이날 훈련은 겨울철 화재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 대응을 목표로 불시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하고 훈련 단계별 상황처리 능력 향상을 위해 진행됐다.

훈련은 금남로5가역에서 방화에 의한 화재 신고접수를 시작으로

단계별로 나눠진 긴급구조통제단의 상황처리 능력을 숙지하는 데 중점을 뒀다.

신고접수 후 △재난 현장의 상황전파 △선착대 및 지휘대 활동 △30명의 다수사상자 중증도 분류 및 이송조치 △불시 긴급구조통제단 가동 △재난상황 브리핑 및 복구·수습 등으로 이뤄졌다.

김남윤 북부소방서장은 “예측 불가의 대형 재난상황은 출동대를 총괄하는 통제단이 언제든 대응



할 수 있도록 작동해야 한다”며 “지속적인 훈련으로 개인별 임무 숙달과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